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1월 17일(목) 총 4매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 당 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김성이 ☎440-673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독립운동 흔적과 그 후손들을 사진으로 담다
- 인천시립박물관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 기념 '김동우 사진전' 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은 시립박물관에서 오는 22일 화요일부터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와 그곳에 살고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 김동우 사진작가와 함께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사진작가는 2017년 인도를 시작으로 멕시코, 미국, 쿠바,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세계 곳곳 독립운동의 이야기들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특히 올해는 120년 전 한민족 공식 이민의 첫 도착지인 하와이의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다녀와 이민의 출발 도시인 인천에서 첫선을 보인다.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도(片道), 뭇우리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크게 이루지 못한 꿈’, ‘신(辛)세계의 상’, ‘사(死)선에서 의(義)를 품고’라는 세 부분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김동우 사진작가는 tvN 예능프로그램인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광복절편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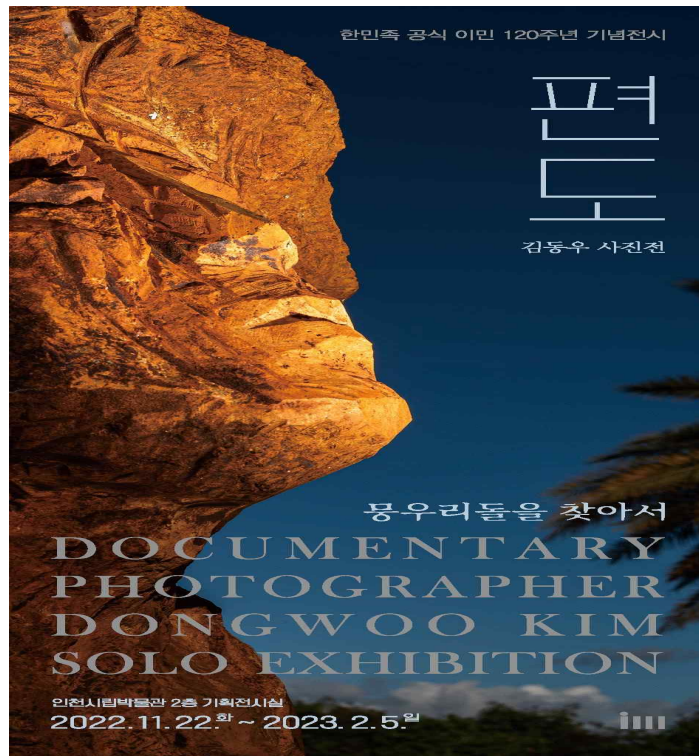
국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뭇우리들을 찾아서』, 『뭇우리들의 바다』 등의 저자이기도 한 김동우 작가는 국가보훈처 보훈문화상과 은빛사진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동우 사진작가는 “2017년에 인도를 여행하던 중 텔리의 레드포트가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이란 걸 알게 되면서부터 독립운동가의 삶에 사로잡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흔적을 담은 사진들이다. 역사를 누군가는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사진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잊혀져가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되새겨보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외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싸워 온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편도, 뭇우리들을 찾아서’ 김동우 사진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이민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현장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붙임 1〉 전시 초대장 이미지



〈붙임 2〉 전시 리플렛 이미지

